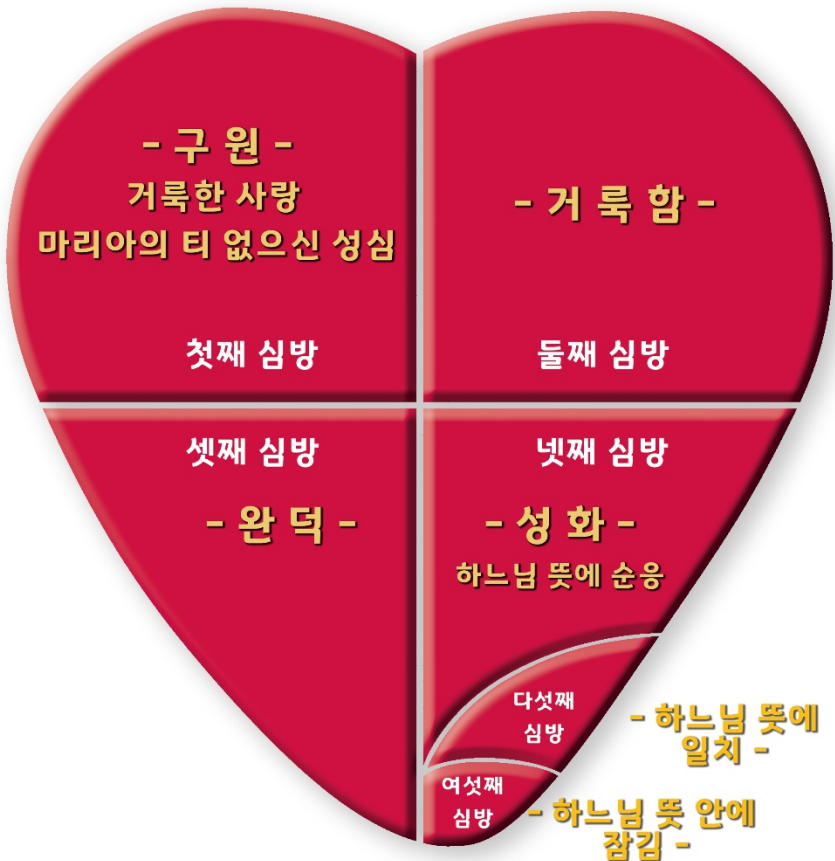


#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계시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 마라나타 샘과 성지  
(Holy Love Ministries / Maranatha Spring and Shrine)



각 심방으로 들어가는 문은 사랑 곧, 하느님의 ‘신성한 뜻’에  
더 완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 소개말

---

## 2001 년 6 월 13 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 성심의 심방들에 대한 이 계시는 성체 다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것은 다가올 내 승리의 표징이다. 그리고 온 세상과 마음에서 승리를 거두는 내 통치의 표징이다.”

“내 성심의 심방들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선택하는 것은 성화되기를 선택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널리 알리라.”

## 2001 년 8 월 28 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자매님, 나는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의 계시는 바로 신학 수업 그 자체라는 것을 자매님이 깨닫도록 돕기 위해 왔습니다. 아무리 깊이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높은 신학적 연구를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에 이르게 해주는, 이보다 더 명료한 구원의 길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우 간단해 보이는 영적 지침을 세상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심오한 이 영적 여정에 대한 설명을 이제 막 시작하셨을 뿐입니다. 자매님 본인은 이 계시의 복잡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 여정 전체가 사랑을 통한 신뢰 가득한 내맡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한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서 이 말씀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찾아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거룩한 심방들을 통과해 나아가는 여정을 방해하려고 사탄이 여러분 앞에 놓아두는 장애물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리십시오.”

2006 년 10 월 16 일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 축일

성심을 드러내신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앞에 아주 작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가 서 계십니다. 복되신 어머니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예수님: “내 성심 깊숙한 곳에는 많은 심방들이 있다.” 예수님께서 미소 지으십니다. 이어서 모린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7 년 전 바로 오늘, 내가 내 거룩한 성심의 심방들에 대해 너에게 말해 준 첫째 사항이었다.”

“이제 내 성심의 심방들이 이 성지와 기도 센터, 그리고 이 선교회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각 심방의 문은 모든 인류와 모든 백성,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 인류가 이 심방들을 추구함으로써 세상에 평화가 올 것이며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축복으로 너희에게 강복한다.”

## 서론

---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태초에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남자를 만드신 다음, 그의 갈비뼈로 첫 여자를 지어내시어,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높이 받들고 흠송하며 복종하게 하셨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자로 이 세상에 보내졌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인류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고, 많은 이들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고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나는 내 어머니를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와 함께 너희에게 먼저 파견했으며, 그런 다음에는 내가 직접 너희에게 와서 신성한 사랑의 메시지와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완전한 메시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구원, 거룩함, 완덕, 순응, 그리고 일치의 길이다."

(예수님, 2001 년 1 월 24 일)

## 첫째 심방 – 구원

---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비밀들인 구원, 거룩함, 완덕, 순응, 그리고 일치에 대하여 너희에게 더 말해주기 위해 왔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심하지 않고 있다. 즉, 자기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회심은 내 어머니의 성심의 은총을 통해 이루어진다.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심이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이다. 이것은 거룩함, 완덕, 순응 그리고 일치에 앞서는 결방이다."

"내 어머니의 성심은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위대한 두 계명인 거룩한 사랑이다. 이 계명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든 모르든 자신의 구원을 추구하는 영혼은 내 어머니의 성심이자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첫째 심방인 거룩한 사랑에 들어가야만 한다."

"영혼이 일단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에 들어가면, 어머니 성심의 불꽃인 거룩한 사랑의 불꽃을 통해서 그의 가장 두드러진 잘못들이 밝혀진다. 그가 은총 속에 인내하면, 이 잘못들은 타버려 없어지고, 그 영혼은 개인적 거룩함인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둘째 심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다. 이제 그는 신성한 사랑과 내 신성한 성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2001년 1월 25일)

## 둘째 심방 – 거룩함

---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가 자유의지를 더 많이 포기해야만 내 성심의 더 깊은 심방에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란다. 영혼이 내 성심의 둘째 심방에 다가갈 때 그는 사랑의 순교를 시작하게 된다. 즉, 그는 사랑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포기하는 희생을 하는 것이다."

"내 존엄한 성심의 둘째 심방에서 영혼은 내 성심의 불꽃에 싸여 거룩함을 추구하게 된다. 신성한 사랑의 불꽃은 영혼을 내게서 멀어지게 하는 작은 잘못들까지도 그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내 성심의 이 심방에서 영혼은 현 순간을 더 잘 인식하게 된다. 그는 과거는 내 자비에 맡기고 미래는 내 베푸는 은혜에 맡겨야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는 현 순간의 은총에 자신을 내맡긴다."

"내 성심의 둘째 심방에 있는 영혼들은 그들을 위한 영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더 잘 깨닫게 되며 내 아버지의 뜻을 잘 받아들인다. 그들이 현 순간 하느님의 뜻에 더욱더 많이 내맡길 때, 그들은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것이다."

(예수님, 2001 년 1 월 26 일)

## 셋째 심방 – 완덕

---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영혼이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결심을 하게 되면, 자신의 마음속 덕의 깊이를 더 잘 인식하게 된다. 모든 덕은 사랑과 겸손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겸손의 깊이가 모든 덕의 깊이를 결정한다."

"모든 덕은 성령의 힘에서 비롯된다. 어떤 사람이 사랑스럽고 겸손하게 처신할 줄 안다 해도 이 덕이 마음속에 활발히 살아 있지 않으면 이는 모

두 걸치레에 불과할 뿐이다. 지성에 기초하는 덕은 하나도 없다. 자신이 겸손하고 거룩하며 덕이 높은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라는 사람은 거짓 덕을 실천하는 것이다. 덕의 실천은 오직 영혼과 그의 창조주만이 알고 있어야 한다."

"하느님 보시기에 영혼이 덕을 다듬고, 그 덕을 더욱더 갈고 닦고자 노력할 때 그는 내 성심의 셋째 심방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 심방에서 영혼은 모든 덕을 거둬 거둬 시험당하게 되는데, 그것은 영혼이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덕이 강해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 심방에서는 불에 순금이 정련되듯 신성한 사랑의 불꽃으로 영혼의 덕이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하여 영혼의 거룩함이 더욱 정제되어 내 성심의 다음 심방에 들어올 준비를 갖추게 된다."

(예수님, 2001 년 1 월 27 일)

## 넷째 심방 – 하느님 뜻에 순응

---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넷째 심방을 너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왔다. 이 심방은 '성화의 심방'이다. 이곳은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기를 추구하는 영혼이 현 순간 거룩한 사랑의 성덕의 삶을 사는 데 자신의 뜻을 성공적으로 내맡긴 후에 들어오는 곳이다."

"우리의 하나된 성심의 넷째 심방에서는 아직도 두 개의 뜻 즉, 인간의 뜻(의지)과 하느님의 뜻이 각각 뚜렷이 존재한다. 인간의 뜻은 모양틀에 담겨 있는 젤라틴에 비유할 수 있다. 이 넷째 심방에서 영혼은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과 닮게 하려고 모든 죄는 물론 죄가 되는 사소한 버릇까지도 극복하려고 노력한다. 영혼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 2001 년 1 월 29 일)

## 다섯째 심방 – 하느님 뜻에 일치

---

"보아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에게 내 신성한 성심의 가장 깊은 심방인 다섯째 심방을 설명해 주기 위해 왔다. 이 심방에서 영혼은 나를 사랑하고 기쁘게 해 주려는 갈망에 불타오른다. 이 사랑에 의해 영혼은 신성한 뜻에 순응하는 단계를 넘어 크게 진보한다. 하느님의 뜻에 순응하는 단계에서는 아직도 뚜렷이 구분되는 두 개의 뜻 즉, 하느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존재한다. 영혼은 모든 것을 하느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받아들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내 성심의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다섯째 심방에서 영혼은 자신을 위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뜻을 깊이 사랑하게 된다. 최대한으로 완전해진 이 사랑 속에서 영혼은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내 성심의 이 다섯째 심방까지 도달하는 영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니 보아라.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인 첫째 심방으로 너희를 초대하는 것도 사랑이요, 더 깊은 평화와 거룩함을 구하는 둘째 심방으로 너희를 초대하는 것도 사랑이다. 셋째 심방 곧, 완덕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도 사랑이다. 인간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순응시키는 넷째 심방으로 영혼을 인도하는 것도 사랑이다. 다섯째 심방에서 영혼을 하느님과의 일치로 이끄는 것도 사랑이다. 그러니 영혼의 영원(eternity)을 결정하는 것은 그 영혼이 얼마나 깊이 사랑에 내맡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예수님, 2001 년 1 월 31 일)

## 결론

---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만일 사랑이 내 성심의 각 심방의 출입구라면, 영혼이 한 심방에서 다른 심방으로 옮겨가는 것은 오직 사랑에 대한 더 깊은 내맡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첫째 심방에서 영혼은 죄보다 하느님을 더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구원이자 내 어머니의 성심이다. 둘째 심방에서 영혼은 하느님과 이웃을 보다 더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한다. 셋째 심방에서 영혼은 더욱 순수한 사랑을 통해 완덕을 추구한다. 이제 더욱더 완덕에 가까이 이른 정화된 영혼은 넷째 심방에서 자신의 뜻을 하느님의 뜻에 순응시키기를 갈망한다. 그리고 내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다다른 매우 소중한 영혼들은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 속에서 산다. 하느님께서 그들 안에 사시고 그들은 하느님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는 하나 된 우리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들어오는 이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신다."

"이 기도를 바쳐라:"

"사랑하올 하나되신 예수 마리아 성심이시여, 저는 매 현순간 모든 것의 모든 면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에 내맡기기를 갈망하나이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은총에 응답하려는 저의 노력을 도와주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제 마음을 다스리소서. 아멘."

(예수님, 2001년 2월 1일)



# 여섯째 심방 –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

---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며 최상의 천국인 여섯째 심방의 계시는 2003년 4월에 시작되었습니다.

## 2003년 4월 1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에게 여섯째 심방에 대해 설명해주러 왔다. 이것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성심이다. 이 성심은 하나된 우리 성심의 다른 모든 심방들을 감싸고 계신다. 이 심방 안에 새로운 사랑의 계약인 하느님의 약속이 있다. 이 여섯째 심방으로 들어온 영혼들은 최상의 천국에 도달한 것이다. 이곳은 현세에서 이미 성화를 이룬 영혼들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내세에서는 다섯째 심방에 도달한 성인 성녀들과 사랑의 순교자들이 최상의 천국으로 들어간다."

"내 아버지의 성심이 하나된 우리 성심의 모든 심방들을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각 영혼이 이 최상의 천국에 들어와 그 안에 잠기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깨달아라. 믿음이 있는 이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2003년 4월 2일

"찬미 예수님, 나는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입니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쉽게 여섯째 심방을 설명해 주기 위해 왔습니다."

"여섯째 심방은 신성한 뜻인 하느님의 성심의 포옹입니다. 영혼은 하나된 신 성심의 심방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수록 아버지의 성심이 더욱 강하게 감싸시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은 이 첫째 심방에 들어갈 때 아버지의 포옹이 시작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각 심방에서는 영혼이 아버지의 포옹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

다. 영원하신 아버지께서는 각 영혼을 가장 높은 천국으로 데려오고자 하십니다."

## 2005 년 1 월 28 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여섯째 심방인 하느님의 성심에 대해 알아보시다. 이 심방 안에서는 하느님의 성심이 영혼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십니다. 그러면 영혼은 하느님의 뜻이 머무시는 살아 있는 감실이 됩니다. 이러한 영혼은 언제나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혼은 교만의 유혹을 극복하여 교만으로 인해 생기는 조급함, 탐욕, 분노, 모든 방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혼은 매 순간, 매 숨마다 하느님의 성심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는 오직 하느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만 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느님께 기쁨이 되기에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이 경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 2006 년 6 월 27 일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오시어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예수님과 마리아께서는 여러분이 하나되신 성심에 관한 이 마지막 가르침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라고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성심과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신성한 뜻을 통하여 영원히 결합되었습니다. 하나되신 성심을 감싸고 보호하시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성심과 하나인 신성한 뜻입니다. 하나되신 성심의 심방들은 영혼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다양한 수준과 깊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곳 성지에서 천국이 드러내주신 영적 여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하느님의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마라나타 샘과 성지 배치도

---

“내 자녀들아, 이곳 성지의 구조는 거룩함과 우리의 하나된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영혼의 여정을 나타낸다는 점을 부디 깨닫기 바란다.”

“영혼은 가장 먼저 내 고통스럽고 티 없는 성심 (눈물의 호수) 안으로 인도된다. 여기서 그의 가장 두드러지는 결점들이 정화된다. 그 다음 영혼은 천사들의 안내를 받아 여정을 계속한다 (천사들의 호수). 그는 내 성심 안으로, 그리고 내 아드님의 성심인 신성한 사랑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은총을 받는다 (마라나타 샘).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신성한 뜻과의 일치 속에서 영혼은 승리와 우리의 하나된 성심, 그리고 개선의 벌판에 도착한다. 모든 승리와 개선은 십자가의 길에 둘러싸여 있음을 깨달아라. 그래서 성지 뒤쪽에 십자가의 길이 있는 것이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있으니 우리의 하나된 성심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오너라. 내 아드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성모님, 1999 년 12 월 12 일)